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사건사고 피해자 병원비 정부가 대납
산업·경제 중국 최초로 인공지능 혁신응용 선도지구 설립
사회·복지 경력기록·승진보장 체계 구축해 보육인재 양성
청년 장애인 대상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행정·교육 하와이 전통언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인정

환경·안전 전염병 옮기는 모기 퇴치에 '천적' 제비·박쥐 동원
도시교통 대형 상업시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도시계획·주택 노후 공공시설, 민간협력·매각 등 각종 해법 모색
정보·기타 해커톤 대회 등 오픈데이터 활용해 시민참여 유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사건사고 피해자 병원비 정부가 대납

응급환자 치료 골든아워 확보...의료서비스 양극화도 해소

인도 델리NCT / 사회·복지

인도 델리NCT 정부는 사건사고 피해자가 시급히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리가 먼 국공립병원을 선택하다가 치료 골든아워를 놓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정부가 의료비를 대납하는 지원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

정책적 배경

-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 인도 의료보건 서비스는 주로 무료인 국공립병원과 유료인 민간의료기관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국공립병원은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료수요가 많아 민간 의료기관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단점
 - 응급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서민은 가까운 민간의료기관 대신 먼 거리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선택해 치료 골든아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
 - 특히 델리NCT는 매년 8천여 건의 교통사고에서 약 1,600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의료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

주요 내용

- 지역 내 사건사고 피해자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병원비를 정부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
 - 지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화상, 산 테러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지역 내 민간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피해자의 병원비를 정부가 대납
 - 지원기관인 지역 내 등록된 사립병원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 해당 진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의료 면허권 박탈을 경고
 - 진료비 지원 신청 시 경찰과 연계된 사건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스템 간소화를 바탕으로 제도 접근성 강화
 - 작년 한 해 지역 내 사건사고 피해자 1,727명과 산 테러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약 3천만 루피(5억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정부가 대납

- 민간진료기관은 정찰가격을 바탕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 검증된 영수증을 근거로 병원비가 보상되며, 행정적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연체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
- 이외에도 공공의료 부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소 형태의 모할라 클리닉(Mohalla Clinic) 100여 곳을 지역 전역에 신설하며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

긍정적 효과

- 응급환자 치료 골든아워 확보에 긍정적 영향
 - 사건사고로 긴급 환자 발생 시 병원비와 관계없이 의료서비스 접근성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든 진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중증으로 확산되기 이전 제때 의료진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
- 보건의료 부문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
 - 긴급한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비용에 따른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예상 밖 사건사고가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긍정적 효과



[그림 1] 모할라 클리닉 전경



[그림 2] 인도 최대 민간의료기관 아폴로병원

<https://www.firstpost.com/india/delhi-govt-will-provide-free-treatment-for-accident-acid-attack-victims-in-hospitals-announces-arvind-kejriwal-7085001.html>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govts-free-treatment-scheme-helped-1700-accident-victims-5569160/>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arvind-kejriwal-will-cancel-licences-if-pvt-hospitals-deny-free-treatment-5865171/>

<http://www.millenniumpost.in/delhi/govt-issues-guidelines-for-free-treatment-of-accident-victims-285622>

<https://www.thestatesman.com/cities/delhi-govt-accident-victims-to-get-free-treatment-in-private-hospitals-1502544245.html>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중국 최초로 인공지능 혁신응용 선도지구 설립

중국 상하이시 / 산업·경제

인공지능을 미래의 발전방향으로 삼은 중국 상하이시는 지난 5월 21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상하이시 푸둥신취(浦东新区)에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 혁신응용 선도지구를 설립함. 선도지구에는 제조·의료·교통·금융 등 선도분야의 인공지능 혁신 시험장을 건설하고, 인공지능 표준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거래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

배경

-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해 2030년까지 세계적 인공지능 선두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 수립
 - 2017년 3월 5일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흥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내 인공지능 발전 전략이 본격화
 - 계획은 인공지능산업의 3단계 발전목표를 확정하고, 창조형 국가(创新型国家)¹⁾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의 건설을 가속화하기로 함
 - 각 지방 정부도 현지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 육성 정책을 시행 중
- 상하이시는 인공지능을 전략 발전방향으로 삼고 국가 인공지능 발전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7년 이후 다양한 정책을 발표 중
 - 2017년 11월 20일 ‘상하이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本市推动新一代人工智能发展的实施意见)을 공표
 - 2020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을 1천억 위안(16조 5천억 원) 규모로 발전시키고, 2030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인공지능 발전지구를 조성할 계획
 - 상하이를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상하이(AI@SH)’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발전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규정
 - 2018년 9월 17일 ‘상하이 인공지능의 질 높은 발전 추진 가속화를 위한 실시방법’(关于加快推进上海人工智能高质量发展的实施办法) 공표
 - 시정부는 고급인재의 유치, 데이터 자원의 개방과 응용의 심화, 인공지능 산업의 시너지 혁신 등의 중점 분야에 관한 22개 조항의 조치를 제언

1) 과학기술 창조를 기본 전략으로 삼으며,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대폭 높여 국제 경쟁력에서 나날이 우세를 보이는 나라

- 2019년 5월 21일 공업정보화부와 상하이시 정부의 지원으로 중국 내 최초의 인공지능 혁신응용 선도지구가 출범
 - 혁신지구의 출범은 스마트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상하이에 ‘스마트+’ 산업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상하이시의 특징

- 상하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응용 추진에 유리한 조건이 많은 도시
 - 산업기반이 훌륭함
 - 상하이 푸둥 지역에는 금융무역, 자동차 제조, 생물 의약, 스마트 설비 등 인공지능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유리한 산업과 기업이 집중
 - 중장비, 첨단제조는 물론이고 집적회로를 비롯한 신형 산업이 분포되어 있어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응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건이 우수
 - 초대형 도시의 사회 거버넌스와 공공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 자원을 축적하여 인공지능에 풍부한 부능(赋能: 권한의 대상)과 광범위한 ‘라이브 앱’(LiveApp)을 제공
 -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상하이에 있는 명문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원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5G 산업의 선도지구
 -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5G 네트워크는 인공지능 혁신응용 선도지구 건설의 필수 요건
 - 상하이시는 2019년까지 1만 개, 2021년까지 3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여 상하이시 전체에서 5G네트워크를 상용화할 예정
 - 자유무역지구가 있음
 - 푸둥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지구에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므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소와 난제를 해결하기 쉬움

주요 내용

- 선도지구는 공평하고 개방적인 경쟁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회자본투입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기업을 육성
 - 제조·의료·교통·금융 등 선도분야의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혁신응용 시험장을 건설

- 인공지능의 산업배치, 인프라 구축, 표준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거래 등에 관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
- 2021년까지 푸둥신취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핵심산업 클러스터, 전국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제품응용 시범구역, 인공지능 업계 표준규범과 제도규범의 혁신지원지구 조성을 목표로 함

[표 1] 선도지구에서 추진하는 3대 임무

3대 임무	주요 내용
인공지능 핵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칩, 커넥티드카, 스마트로봇, 스마트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 - 산업기반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을 유치·육성하여 장강·금교(金桥)·임항(临港) 등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구를 조성하는 데 주력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 추진	- ‘AI+의료’, ‘AI+제조’, ‘AI+자율주행’, ‘AI+금융’의 4대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응용과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추진
인공지능의 혁신지원 체계 구축	- ‘알고리즘·해시레이트(Hashrate)·데이터’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평가, 기술 평가, 업계 데이터 응용 등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혁신의 주기와 원가를 절감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대학·연구원 등 다원적 주체의 혁신을 추진 -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적극 모색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 -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 인재와 전문 인력을 도입하고 육성 및 발굴

선도지구 출범의 의의

- 중국은 인공지능을 차세대 경제 성장전략으로 결정하고 막대한 자금과 인재, 기술을 투입 중이지만 아직 인공지능 응용·산업화는 초기단계
 - 아직 중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완벽하고 성공적인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발전모델은 찾아보기 어렵고, 관련 업계의 정책이나 규범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
-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
 -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제품을 선도지구에서 시범 활용하면서 벤치마킹을 진행하거나, 보급 가능한 기술·제품을 찾아낼 수 있음
 - 또한, 경험을 축적하고 업계표준을 형성하여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
 -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선도지구는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산업사슬 등을 갖춘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권을 건설하여 스마트 경제의 새로운 표본을 만들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 국가적 전략을 도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상하이시
 - 중국 내 최초의 인공지능 혁신응용 선도지구를 상하이에 유치한 것은 중국 정부 차원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을 발전 방향으로 삼고 국가 인공지능 발전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상하이시의 노력이 결합된 성과
 - 현재 상하이시의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규모는 700억 위안(11조 5,500억 원)을 넘어 중국 내 1위 수준
 - 선도지구의 출범을 발판으로 상하이시는 산업과 기업 역량을 결집하여 중국 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http://www.cac.gov.cn/2019-05/31/c_1124565704.htm

<http://www.chanchengchina.com/yqgh/a345673822716>

http://www.pudong.gov.cn/shpd/departments/20190618/019010005_68d195a6-2838-4cf1-8a8b-e7c44f13fd78.htm

<http://dy.163.com/v2/article/detail/EFNIEBF6053469RI.html>

http://www.gov.cn/xinwen/2017-11/15/content_5239791.htm

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경력기록·승진보장 체계 구축해 보육인재 양성

일본 교토府 / 사회·복지

일본 교토府는 보육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수한 보육사를 육성하고 그들이 보람을 느끼며 오래 일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를 인지하고, 보육사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승진을 보장하는 ‘교토식 보육인재 승진 코스’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배경

- 우수한 보육인재의 육성 필요성을 인지해 보육사의 승진을 공식화하는 제도 도입
 - 사회정세 변화로 보육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육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수한 보육사를 육성하고 직장에 정착시키느냐가 주요 과제로 인식됨
 - 교토부는 보육사가 보람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토식 보육인재 승진 코스’(京都市保育人材キャリアパス)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 보육사의 표준적인 경력 향상단계를 표시하는 제도로, 부내 보육원이나 인정 어린이집 등에 공통으로 적용
 - 또한, 경력 향상이나 경력 증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수 수강 이력을 기록·보존하는 ‘교토 보육인재 경력 패스포트’를 작성해 부내 각 시설에 배부

주요 내용

- 교토식 보육인재 승진 코스 제도
 - 보육사의 중견층 직급으로 ‘직무 분야별 리더’나 ‘전문 리더’, ‘부주임 보육사’ 등을 설정하고 경험 연수나 능력에 따라 세분화된 경력 향상 단계를 인정
 - 중견층 보육사의 급여를 월 5,000~40,000엔(5만 5천~44만 원) 추가 지급
- 각 계층에 요구되는 승진 요건으로 8개 항목을 제시
 - ①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 ② 요구되는 업무, ③ 익혀야 할 전문지식과 보육에 필요한 기술, ④ 요구되는 능력, ⑤ 요구되는 대응 자세, ⑥ 필요한 연수, ⑦ 급여, ⑧ 승급 조건
- 교토 보육인재 경력 패스포트
 - 사회정세 변화 등으로 다양한 전문성이 보육사에게 요구되며, 이런 전문성은 경력 향상과 연수 수강에 따른 기술습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보육사들이 자체적으로 연수를 수강하며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지만, 보육사 개인의 연수 이력을 연속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체계는 없음
- 이에 연수 수강 이력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책자를 작성해 보육사 1인마다 배부하고, 이를 보육사 경력 향상을 위한 패스पोर्ट로 활용
 - 책자에는 경력 향상에 필요한 연수 체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연수 수강이력을 기록·보존해 보육사의 축적된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기대 효과

- 이 제도로 보육사의 직업적 매력이 올라가면, 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보육사를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보육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적절히 평가받고 그에 따른 직위나 처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경력이 단절된 보육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보육원이 이 제도를 따르게 된다면 재취업 시 경력이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이후의 재취업도 수월해지는 장점

<http://www.pref.kyoto.jp/koho/kaiken/documents/3001310001.pdf>

<https://www.pref.kyoto.jp/kosodate/documents/hoikujinzaikakuhokyogikai.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청년 장애인 대상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영국 에든버러시 / 사회·복지

영국 에든버러시는 낮은 청년 장애인 고용률을 개선하고자 EPS(Edinburgh Project SEARCH)라는 이름의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 장애인에게 숙식을 하며 업무를 익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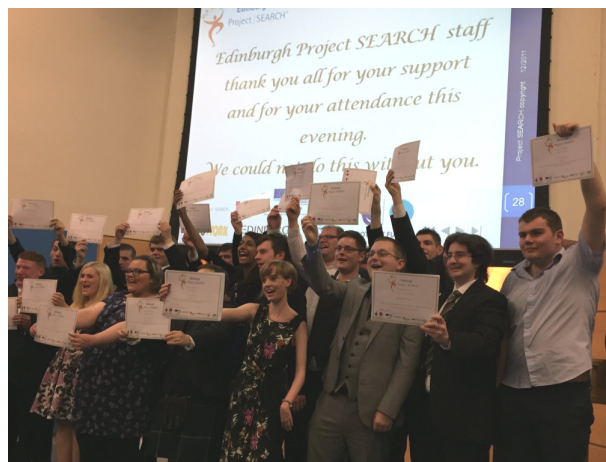
- 시정부가 미국서 시작한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위해 도입
 - ‘Project SEARCH’는 미국 신시내티 어린이병원에서 1996년 처음 시작한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500여 도시에서 활용 중
 - 비영리 자선단체 DNF Foundation이 프로그램의 권리를 보유, 운영 중
 - 시정부는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개선하고자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
 - 영국 스코틀랜드 내 장애인 고용률은 45.4%로 일반인(81.2%)의 절반 수준이고, 장애인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도 일반인에 견줘 7~25%로 낮은 편
 - NHS(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에든버러 대학, 민간 고용연계기업(Into Work)과 파트너십을 맺고 스코틀랜드 청년 장애인이 겪는 고용시장 내 상대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실현
 - 시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5년간 인턴 교육을 받은 116명 중 93%가 정규직으로 취업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은 16~29세의 청년 장애인 중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식별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16~29세의 청년으로, 주 16시간 이상(월~금, 9~16시)의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고, 이동과 교육 수업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 장애인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Transition-to-Work’ 프로그램
 - 취업교육, 고용시장 탐색, 장기간의 일자리 코칭, 멘토(선생님, 트레이너, 고용주)의 끊임없는 피드백, 인턴십을 활용한 직무 경험,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지원, 취업 연계 등

○ ‘Transition-to-Work’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① 호스트 기업·병원에서 최대 12명의 지원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몇 주간에 걸친 초기 오리엔테이션과 기본업무 숙지 훈련을 시행
- ② 이후 프로그램 기간에 업무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
 - 이 기간에 지원자들은 따로 마련된 트레이닝룸에서 업무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움
 - 주요 교육 내용은 팀워크, 업무환경 내 안전,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고용 안정성, 멘탈 케어, 경제분야 지식, 건강과 웰빙, 취업 준비 등
- ③ 직업훈련이 끝난 다음 본격적인 인턴십에 참여
 - 3곳의 기업·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이 기간에도 매일 2시간씩 트레이닝룸에서 멘토의 피드백과 트레이닝을 받음
- ④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원자는 EPS에서 호스트 기업·기관에 적극 연계
 - 적합한 고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도움
 - 지난 5년간 EPS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원자의 93%가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고, 올해도 22명의 청년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쳐 취업을 준비 중



[그림 1] 2016년 Edinburgh Project SEARCH 프로그램 수료식

<https://www.edinburgh.gov.uk/projectsearch>

http://www.edinburgh.gov.uk/news/article/2675/hats_off_to_project_search_graduates

<https://twitter.com/hashtag/edinburghprojectsearch>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하와이 전통언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인정

미국 하와이주 / 행정·교육

미국 하와이주 법원은 최근 교사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와이 전통언어 교육과정을 폐지한 학교를 상대로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와이어 교육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 해당’한 다며 정부가 소수 주민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교육을 제공할 것을 주문

배경

- 하와이 전통언어는 한때 소멸위기였지만 1987년부터 학교 교육 제공으로 회생
 - 하와이 전통언어는 미국 정부의 금지정책 때문에 1900년대부터 약 90년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때 소멸 위기에 처함
 - 1900년대 당시 3만 7,000명에 달했던 하와이어 구사자는 1987년 기준 원주민 1,000명 중 25명, 18세 이하 원주민은 1,000명당 9명 수준으로 하락
 - 1987년에 하와이어가 영어와 함께 하와이주의 공용어로 지정되며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하와이어 몰입 교육’을 시작
 - 하와이어 몰입 교육은 주요 섬에 있는 공립학교 17곳에서 처음 시작했고, 현재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총 24개
 - 교육 시작 이후 하와이어 구사자 수가 크게 회복
 - 하와이어 교육 시작 10년 후에는 전통언어 구사가 가능한 18세 이하 원주민 수가 1,700명에 이르렀고, 2001년에는 원주민 가정 중 약 20%가 가족 간 대화 시 하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주요 내용

- 최근 인구가 적은 섬에서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과를 폐지하면서 학부모와 갈등 발생
 - 하와이에서 6번째로 큰 섬이지만 거주인구는 3천 명에 불과한 라나이(Lanai)섬 내 유일한 공립학교에서 하와이어 교사를 구하지 못해 교과를 폐지
 - 이에 따라 해당 교과에 두 명의 자녀를 등록한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
 - 주 법원은 하와이어 교육은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에 해당하며, 공교육의 범위에 포함됨을 밝히고 학부모의 손을 들어줌

- 소수 거주민이 사는 지역이라도, 당국이 하와이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주정부가 1987년부터 하와이어와 영어 모두를 공용어로 지정했다는 것이 주요 근거
- 원주민 단체는 환영, 학교 측은 예산을 이유로 반대
 - 원주민 단체는 이번 판결을 매우 강력한 기념비적 결정이라고 밝히며 환영
 - 해당 학교는 재정상의 문제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 하와이어 교사 채용 시 필요한 1인당 연봉은 경력에 따라 최소 37,218달러 (4,466만 원) 최대 65,126달러(7,815만 원)
 - 주 상원의원 실비아 루크(Sylvia Luke)도 라나이 지역의 높은 물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른 교과목의 교사 채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라고 주장



[그림 1] 하와이어 몰입 교육 장면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TeachingAndLearning/StudentLearning/HawaiianEducation/Pages/Hawaiian-language-immersion-schools.aspx>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TeachingAndLearning/StudentLearning/HawaiianEducation/Pages/translation.aspx>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ConnectWithUs/MediaRoom/PressReleases/Pages/OHE-seeks-Kaipuni-teachers.aspx>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DOE%20Forms/OTM/TeachersSalary19-20.pdf>

https://scholarspace.manoa.hawaii.edu/bitstream/10125/20856/M.A.CB5.H3_3454_r.pdf

http://www.slate.com/articles/life/tomorrows_test/2016/06/how_the_ka_papahana_kaipuni_immersion_schools_saved_the_hawaiian_language.html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전염병 옮기는 모기 퇴치에 ‘천적’ 제비·박쥐 동원

지흥드도 / 환경·안전

프랑스 지흥드도는 해마다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의 원인이 되는 모기퇴치에 제비·박쥐 등 모기를 먹이로 삼는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방역을 시도해 큰 성과를 거둠

배경

- 수년간 모기 개체 수 증가로 주민 불편 호소
 - 프랑스 가정집은 일반적으로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아 모기 피해가 더 극심
 -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안으로 여는 여닫이식 창문과 그 위에 덧창(Volet)¹⁾을 다는 건축문화 때문으로 판단
- 지역 내 뎅기열 환자 발생으로 주요 감염원인 흰줄숲모기의 방역 대책 실행
 - 올 7월 도 내 소도시인 앙베스(Ambès)에서 뎅기열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
 - 다행히 해당 환자는 해외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방역 당국은 해당 병의 주요 감염원인 흰줄숲모기 방역에 신속히 나섬
- 당국은 신속한 방역을 펼치는 한편, 더 효과적인 방역 대책 모색
 - 모기의 주 산란지역을 파악한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란지 집중방역
 - 집 주변 웅덩이·고인 물 제거 등 다양한 주민 대상 캠페인 시행
 - 더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

박쥐·제비 활용 친환경 방역시도 성공

- 모기 산란지 주변에 박쥐서식처를 만들어 야간 모기퇴치에 큰 효과를 거둠
 - 지난해 지흥드도의 몇몇 도시에서 처음 시도
 - 연구결과 박쥐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모기 2천~3천 마리를 포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목재, 철재, PVC 등 투명하지 않고 견고한 소재로 만들어 유리창 바깥쪽에 설치하는 여닫이 혹은 롤업(Roll-up)형태의 창호 장치임. 방법과 프라이버시, 치양 등의 실용적 이유나 문화적 이유로 프랑스 주거건축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 공원·학교 운동장 등지에 새 둥지를 설치해 야간의 박쥐에 이어 주간에는 제비의 활약을 기대
 - 올해 베글르(Begles)시에 이어 탈랑스(Talence)시도 새둥지 50개를 공원, 학교 운동장 등에 설치하여 제비 등의 유입을 유도
 - 야간에 활동하는 박쥐를 대신해 주간 모기사냥에 활약을 기대
 - 연구결과 제비과 조류도 박쥐와 마찬가지로 한 마리당 주간 약 2천~3천 마리의 모기를 포식하는 것으로 확인
 - 조류의 번식기인 내년 봄철에 유입될 새들이 자리를 잡아 여름 가을을 나면서 모기를 먹이로 삼을 것으로 기대
- 모기의 비행반경이 100m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
 - 주 출몰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음
- 조류 보호협회와 연계하여 사업 진행
 - 협회는 201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둥지 설치 장소를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식재나 나무 등을 심어 새들의 안식처를 보완
 - 특히 프랑스에서 제비의 개체 수가 몇 년 사이 현저히 줄어들어, 제비번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그림 1] 모기를 먹이로 잡아먹는 제비를 위한 둥지 설치 모습

- 베글르시는 지난해 박쥐 도입의 성공에 이어 제비둥지 100개를 설치해 큰 효과를 봄
 - 작년 여름, 증가하는 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산란기 집중방역을 시행한 데에 이어, 예방 차원에서 제비집·박쥐집 100여 개를 공원·학교 등지에 설치

- 지속적 홍보를 바탕으로 주민도 각자의 집 정원에 제비집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
 - 제비집을 설치하는 집에 지원금 10유로(1만 3천 원) 지급
- 새 둥지는 개당 8~15유로(1만~1만 9천 원) 수준으로 효과에 비해 예산이 매우 저렴

시사점

- 모기퇴치 효과뿐 아니라 생물다양성까지 보호하는 친환경 방안
 - 같은 이유로 탈랑스시는 2017년부터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 방역 약품의 사용을 금지
 - 이런 친환경 정책의 연장선에서 모든 새둥지와 박쥐집은 프랑스 내 ‘지속가능한 개발’²⁾로 관리되고 있는 숲에서 벌목한 나무로 제작
 - 친환경적면서도 적은 예산의 단발 투입으로 기존 방역보다 좋은 효과 기대
- 모기의 생태 습성을 잘 분석하여 천적의 개체 수 감소 문제도 함께 해결한 좋은 사례
 - 모기의 천적인 제비는 최근 수년간 개체 수가 위험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이 정책으로 다시 개체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조류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제비둥지 2,000여 개 중 500여 개가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지만, 대체된 둥지는 100여 개에 불과
 - 제비둥지는 프랑스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도심 공사 등의 이유로 파괴

2)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단기적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개발방법의 집합을 의미

<https://www.bordeauxtendances.fr/2019/07/09/talence-des-oiseaux-pour-lutter-contre-les-moustiques-tigres/>

<https://www.20minutes.fr/bordeaux/2305219-20180710-gironde-abris-hirondelles-installes-lutter-contre-proliferation-moustiques>

<https://www.20minutes.fr/sante/2305143-20180710-gironde-cas-importe-dengue-detecte-presquile-ambes>

<https://www.banquedesterritoires.fr/begles-lutte-contre-les-moustiques-en-hebergeant-hirondelles-et-chauve-souris-33>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nouvelle-aquitaine/gironde/bordeaux/gironde-cas-dengue-ambes-quartier-traite-epandage-1510215.html>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대형 상업시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 도시교통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계획 중 하나로 전기차(EV: Electronic Vehicle)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도시 내 모든 대형 상업시설의 주차장 시설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영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함

배경

- 도시 내 전기차 사용 증가에 따라 충전소 확대 설치 계획 발표
 - 전기차 운행의 가장 큰 장벽은 충전소의 부족이므로, 도시 내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해 통행상의 편의를 돕고자 함
 - 이는 2040년까지 교통 통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0%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정부의 노력 중 하나
 - 새롭게 발표된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도시 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1%, 도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46%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기차 로드맵(EV Roadmap) 작성
 - 시정부는 도시정부 차원의 환경문제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전기차 로드맵을 작성·발표
 - 이를 기초로 대중교통은 물론 민간·개인의 통행에서도 점진적으로 친환경(Zero Emission)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며, 관련 정책을 시도 중

주요 내용

- 상업용 주차장·차고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늘리고, 대형상업 시설에는 의무화
 -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되, 도시 내 모든 대형 상업시설의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도 중
 - 이번 계획으로 더 많은 민간·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됨
 - 1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상업시설의 주차장은 전체 주차 공간의 10% 이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1월까지 이를 시행하여야함
 -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도시 내 300여 개 이상의 대형 주차시설에 적용될 예정
 - 공영주차장 38개소에도 340개 이상의 신규 충전시설을 설치



[그림 1]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https://sf.gov/news/mayor-london-breed-and-supervisor-aaron-peskin-initiate-plan-fully-electrify-ground>
https://sfenvironment.org/sites/default/files/fliers/files/sfe_tr_ev-roadmap.pdf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노후 공공시설, 민간협력·매각 등 각종 해법 모색

미국 시카고市 / 도시계획·주택

미국 시카고市는 노후·방치된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을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개선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함. 또한, 한정적인 예산으로 노후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이나 다른 정부부처에 매각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동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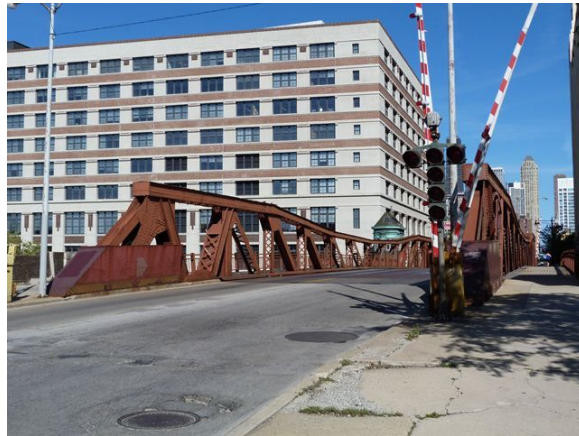
개요

- 오랜 교통 요충지이자 산업도시 시카고에는 낙후된 시설·건물 다수 존재
 - 1834년 시(市)가 되어 1948년 미국 최초로 철도가 부설된 미국 제1의 교통도시
 - 1871년 대화재로 많은 시설이 소실되는 등 굴곡도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철도 외에도 육·해·공상의 다양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
 -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시설물이나 인프라를 새로 건축하는 방법보다는 유지 보수를 바탕으로 보존하려는 노력
 - 낙후된 공공시설과 건물의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접근 추구

주요 내용

- 시민 삶의 질과 안전에 집중해 민간협력·매각 등 융통성 있는 접근으로 노후건축물 활용법 모색
 -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이며, 차선 목표는 시의 역사 보존
 - 시의 자체 계획 외에도 시민의견 수렴, 부처 간 협업, 민간기업과 협업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
 - 재개발 대신 즉시 보수를 위주로 한 시설 개선, 지역주민과 주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낙후시설 재개발, 민간자본 유치, 유지·보수가 어려운 노후 시설의 매각 등
- 시카고 교통국은 낙후된 교통시설에서 사건사고 발생이 급증하자, 시설 재개발 대신 CCTV 교체 등 부분 보수로 대응
 - 2018년부터 오래된 감시카메라를 꾸준히 새로 교체
 - 사건사고 용의자 체포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시설안전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

- 교외지역 톨리파크에서는 주거위원회가 노후 기차역을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기로 결정
 - 노후 기차역인 오크파크 에비뉴 메트라역 남쪽의 약 5,600㎡ 공간을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안이 해당 지역 주거위원회에서 통과
 - 오는 2021년까지 공사 진행 예정, 39세대의 주거공간을 포함한 상업단지로 개발
 - 인근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외곽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해당 기차역의 동, 남, 북쪽 개발계획과도 연계해 외곽지역의 전반적 발전을 도모
 - 교외의 낙후된 공공시설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
- 공공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은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해 활용방안 모색
 - 40년 전 화재 이후 지금까지 일반 시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방치된 시카고 유니언역(Union Station)의 공간을 대형 푸드홀로 개발하는 안 발표
 - 해당 역사의 소유자인 철도여객공사가 역 남쪽에 신축되는 빌딩을 대상으로 민간 은행 'BMO 파이낸셜 그룹'과 입주 및 명명권(Naming Rights) 계약을 체결한 자금으로 푸드홀 개발 계획을 진행
 - 시카고시의 저개발지역과 낙후시설 정비를 명목으로 추진하는 '시카고 프라이즈'(Chicago Prize) 사업을 민간재단이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로 진행
 - 하얏트 가문 유산 상속자 페니 프리츠커와 남편 브라이언 트로버트의 프리츠커 트로버트 재단'(Pritzker Traubert Foundation)에서 주관
- 낙후된 역사적 건축물 유지관리·보수가 어려울 때는 민간 매각 적극 이용
 - 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설을 함부로 해체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 전반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 보존에 적극적
 -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시설을 예산 문제로 유지·보수하기 힘들 상황에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기업 등에 매각을 추진
 - 1914년 시카고강 북쪽 지류 위에 준공된 역사적인 다리의 매각 진행 중
 - 해당 다리는 시카고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지만, 현재의 늘어난 교통량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
 - 국가사적에 등록된 다리이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 내 다른 정부기관, 개입 수집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입 제안서를 접수



[그림 1] 매각이 진행 중인 시카고의 오래된 다리

<https://historicbridges.org/bridges/browser/?bridgebrowser=illinois/chicago/>

https://preservationchicago.org/newsletter_posts/threatened-historic-chicago-avenue-bridge-targeted-for-demolition/

<https://en.wikipedia.org/wiki/Chicago>

<https://www.chicagoprize.org/>

<https://www.ptfound.org/chicagoprize/>

<https://www.transitchicago.com/>

https://en.wikipedia.org/wiki/Chicago_Transit_Authority

<https://metr rail.com/>

https://www.amtrak.com/home?cmp=pdsrch-Amtrak|Brand|Amtrak%20KW|Exact-google&gclid=Cj0KCQjw4s7qBRCzARIsAlmcAxYZ12K5IWtGKGEh50_iu_SCjsorHLSb4dYjuVZOi_QGtfE8ZWR-wN0aAtfYEALw_wcB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해커톤 대회 등 오픈데이터 활용해 시민참여 유도

미국 휴스턴시 / 정보·기타

2014년부터 오픈데이터 서비스를 운영 중인 미국 휴스턴시는 오픈데이터가 단순한 공유에 그치지 않고 공공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 ‘스케치 시티’(Sketch City)와 파트너십을 맺어 오픈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

개요와 배경

- 미국 주요 도시는 오픈데이터 서비스 적극 도입
 - 오바마 행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 발표 이후 주요 도시에서 오픈데이터 서비스를 적극 도입
 - 샌프란시스코시는 2009년부터, 뉴욕시는 2013년부터 오픈데이터 서비스 운영
- 최근에는 단순한 데이터 공개에 그치지 않고, 오픈데이터를 공공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
 - 휴스턴시는 시민단체 스케치 시티와 협력해,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시민참여를 유도

주요 내용

- 휴스턴시는 2014년부터 오픈데이터 포털(data.houstontx.gov)을 운영
 - 12개 카테고리 내 247개 데이터세트 제공 중
 - 주요 카테고리는 지리, 도시 계획, 공중 보건 및 안전, 금융, 홍수 등
 -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직접 요청할 수 있음
-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데이터를 해당 포털과 연결하여 공공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시의 민원전화인 311에 걸려온 전화의 내용과 시의 대응을 인터랙티브 데이터와 지도로 확인 가능한 ‘311 Data’가 대표적 사례
- 시민의 오픈데이터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스케치 시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
 - 스케치 시티는 오픈데이터를 더 좋은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민모임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마케터,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 2014년 처음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약 3,000명이 참여 중
 - 주요 활동은 오프라인 이벤트로 프로그램 교육, 네트워킹, 프로젝트 소개 등을 진행하며, 온라인에서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교환
- 스케치 시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매년 5월 열리는 ‘휴스턴 해커톤’¹⁾
- 2019년 해커톤은 5월 18~19일 24시간에 걸쳐 개최
 - 2019년 우승팀으로 오픈데이터를 활용해 선거 시 최적의 투표장소를 선정한 프로젝트, 병원 예약 시 이동 지원이 필요한 이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앱,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지역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한 프로젝트가 선정
 - 우승팀은 시장과 만나 직접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앞으로 시정에 적용할 계획을 함께 논의



[그림 1] 2019 휴스턴 해커톤 대회

- 과거 스케치 시티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를 시의 오픈데이터 포털에서 소개
- ‘Adopt-A-Drain’ 프로젝트
 - 2017년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역의 배수관을 각자 하나씩 책임지고 관리하는 프로젝트
 - 배수관 입양 및 관리 현황을 오픈데이터와 인터랙티브 맵으로 공유
 - 휴스턴 시는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실제 정책에 도입하여 추진

1) 해커톤: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행사를 의미

- ‘Houston Book Link’ 프로젝트
 - 2017년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로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휴스턴 공립 도서관과 휴스턴이 속한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공립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음
- 스케치 시티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Harvey) 대응에도 도움
 - 스케치 시티 구성원들이 기존의 오픈데이터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대피소를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
 -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한 후 구글 맵과 스프레드시트로 정보 공유
 - 수집한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http://harveyneeds.org>)를 빠르게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정부와 시민을 연결

<http://data.houstontx.gov>

<http://innovation.houstontx.gov/311dashboards.html>

<http://sketchcity.org>

<http://innovation.houstontx.gov/innovation.html>

<https://houstonhackathon2019.devpost.com/submissions>

<https://medium.com/code-for-america/look-for-the-tech-helpers-in-houston-3b0712cf35cc>

<http://harveyneeds.org>

<https://medium.com/@SunlightFoundation/houston-is-showing-us-why-open-data-should-be-part-of-every-citys-disaster-and-recovery-plan-c070362dc477>

<https://cohegis.houstontx.gov/cohgisweb/adopta/>

<https://cityofhouston.news/houston-hackathon-winners-bring-forth-innovative-solutions/>

<https://www.houstontx.gov/mayor/press/adopt-a-drain.html>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64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9월 23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